

가서 똑같이 해라

Go and Do the Same

누가복음 10:25-3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2월 1일 대림절, 성찬식 설교

²⁵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²⁶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²⁷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²⁸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²⁹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³⁰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³¹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³²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³³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³⁴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³⁵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³⁶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³⁷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과 레위사람

거의 네 해 전에 이 본문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랬는데 그 때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 그랬지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우스개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간 두 사람이 제사장하고 레위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지파 소속입니다. 레위지파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지파입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은 제사장이 되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물도 준비하고 성전 및 물품 관리도 맡고 또 제사가 끝나면 청소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런 지파에 속한 두 사람이, 제사를 직접 드리는 한 사람하고 보조하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사람이 안 좋은 역할로 등장한 것은 뜻밖입니다. 예수께서 평소 안 좋게 이야기하신 사람은 여기 안 나오지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오늘 질문을 던진 사람이 율법사인데 이 사람들도 예수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가 마음이 상할까 봐 제사장하고 레위사람을 대신 언급하신 건 아니겠지요?

피하여 간 이유

예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언급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사람 둘 다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원문은 나란히 갔다는 말입니다. 군대가 행군을 할 때 길 양쪽으로 나누어 나란히 가는 그런 식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만약 길 오른쪽에 있었다면 제사장하고 레위사람은 그 사람하고 나란히,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피해 간 거지요. 길 반대쪽으로 최대한 멀리 간 겁니다. 안 도와줄 거면 그냥 똑바로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거리를 멀리 두고 갔겠습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왜 두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사람이라 하셨는지 그게 조금 설명이 됩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최대한 피해 간 것은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반쯤 죽여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냥 보기만 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서 맥을 짚어 본다든지 코앞에 손을 대 본다든지 해서 확인을 하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의 하나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입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 21:1-4, 8, 11). 직계가족의 경우는 예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 노릇을 못 합니다. 한 번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데 최소한 한 주간이 걸립니다 (민 19:11, 14).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민 8:5-11, 21-22). 제사장이 맡은 여러 일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과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강도들이 반쯤 죽여 놓았으니 온 몸이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몸에 피라도 묻으면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결국 두 사람이 피해 지나간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그냥 지나간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아직 살아 있다면 얼른 조치를 취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습니다. 이미 죽은 걸로 판명이 된다면 일이 골치 아파집니다. 만약 살아 있다 해도 피가 묻을 터이니 깨끗함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나 잠시 귀찮은 것하고 비길 수 없겠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귀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됩니다. 나야 좀 귀찮아도 괜찮지만 거룩한 제사에 차질이 와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라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종교의 탈을 쓴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게 형식을 지키고 제도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정신, 그 마음, 그 사랑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이 중요한 일을 무시해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언급 안 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악용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이 지금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긴 싫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에게는 못 드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긴 했는데 갖다 내는 시기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가 실컷 쓰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그 때 갖다 내면 됩니다. 그러니 고르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거역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참 못된 죄악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사람도 바리새인도 또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위선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어 가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시체라도 괜찮고 몸에 피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어차피 더러운 몸 더 더러워질 것도 없으니 가까이 갔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평소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겼기 때문에 죽어가던 이웃을 외면했고 평소 거룩 같은 거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귀한 계명을 부담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챙겨준 걸 하나하나 살필 시간은 없습니다만 참 자상하게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까지 끼워 맞추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는 좋은 증거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가서 자네도 똑같이 하게.” 따라 하라는 말씀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니 주님이 맞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주님이실 가능성이 참 많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신 계기가 됩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께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영생의 길이 율법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옳은 말이라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만 하면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은근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받고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왜 물었습니까? 이웃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도 이웃이고 바리새인도 이웃이고 제사장도 이웃이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니까, 그러면 “아,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랑해 왔습니다” 하고 대답해서 주님한테 “그래? 그럼 넌 합격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겠다는 생각도 잘못이지만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이런 착각이 우리를 죽이고, 그런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난 누구의 이웃인가?

주님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뒤집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사의 질문을 주님은 뒤집으셨습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굴까 그걸 물었습니다. 내 입장에서 따져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죽어가던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 이웃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묻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그걸 물어야 됩니다. 이웃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면 그 사람도 내 이웃이 되겠지요? 그렇게 서로 이웃이 됩니다. 같이 됩니다.

내가 이웃을 정해 사랑하고 말고 한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 죽었을지 모른다, 피도 흥건하구나, 그러니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자. 저 사람을 만졌다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중요한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사랑하는 그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똑같이 해라

우리 주님이 만약 제사장이나 레위사람처럼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몸 더러워지고 옷에 피 묻는 게 귀찮을 정도라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수고와 아픔을 겪는 일은 꿈도 못 꾸겠지요.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셨습니다. 먼 길을 오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가서 똑같이 하라 하십니다. 똑같이 하는 건 주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이 이웃 아닙니다. 가까이 산다고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라고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몸을 뒤흔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못할 슬픔으로 지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나도 바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못 살거든요. 내가 외면하면 내 이웃도 못 살겠지만 그렇게 외면하는 나도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서 너도 똑같이 해라 하신 그 분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죽어가던 나를 살려 주셨는데, 그렇게 살려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알았다 하는 내가 똑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 사랑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못 들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빵을 못 먹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세상의 힘과 돈과 싸움에 당해 아파하는 사람도 다 누군가 와서 이웃이 되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하는 건 우리도 그렇게 가서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면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됩니다. 그 사람은 내 형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는 이유는 따라 할 모범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순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서 똑같이 해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권수경 목사)